



I N N O V I T A T I O N

Since 1960
SeAH 50th Anniversary

응비하려합니다.

오랜 세월 지치지 않고 거센 바람에 맞서서 지지 않았습시다.

격동의 세월과 경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꿏하게 한 길만을 걸어온 세아제강이 어느 덧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세아의 진중하고 뜨거운 마음이 모여

반세기기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100년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는 세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eAH**

50th Anniversary

반세기를 달고서

바람다운 비상

신뢰와 성실, 감사와 겸허
오랜 세월 지나온 세아의 신념입니다.
땀과 노력으로 역사와 전통을 세웠습니다.
반세기의 성취를 밑거름 삼아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기념호

Vol.329
September | October 2010



Contents

창립 50주년 특집

- | | |
|-----------------------|----------------------------|
| <u>04</u> 창립 50주년 기념사 | 힘 없이 걸어온 희망의 길 |
| <u>06</u> 축하합니다 | 외부인사 축하 메시지 |
| <u>10</u> 창업주에게 배운다 |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청렴하고 올곧은 기업정신 |

세아

- | | |
|-----------------------|---------------------------------------|
| <u>14</u> 세아의 어제와 오늘 | 개혁과 도전의 역사 세아 50년 |
| <u>20</u> CEO Message | 백년기업을 향한 세아제강의 힘찬 발걸음 |
| <u>22</u> 50주년 절친노트 | 50살 세아에게 보내는 편지 |
| <u>24</u> 세아 타임캡슐 | 아름다운 시간, 세아의 타임캡슐 |
| <u>28</u> 현장 스케치 | 창립 50주년 축하연
세아제강 기념식 현장
OB 초청행사 |

세아인

- | | |
|------------------------------|---|
| <u>38</u> SeAH Inside | 세아베스틸 종합 준공식
KISNON 2010
챌린지 리더 3기 해외 워크숍 |
| <u>46</u> Global SeAH Report | 척박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다 |
| <u>48</u> Open your Team | 세아베스틸 단조팀 |
| <u>52</u> 세아가 응원합니다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수현 |
| <u>54</u> 세아뉴스 | |
| <u>59</u> 사우동정 | |

SeAH

비전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는 기업

경영이념 세아인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풍부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류사회에 기여합니다.

〈세아가족〉 통권 329호 2010년 9+10월호

발행일 2010년 10월 20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기획본부 02-3783-8163

디자인 · 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수없이 곁으로

희망의 길을

세아제강이 10월로 창립 50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우리의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아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기까지는 강관 제조업의 의지를 온몸으로 실천하며 이를 선도하신 선대 창업 회장님과 또 함께 하였던 창업공신들의 땀과 열정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아 전·현직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고와 희생, 지속적인 국내외 원자재 공급사들의 사명감, 함께 역경을 헤쳐 온 협력사들의 도움, 믿고 지원해주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50년 동안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금융계 등 많은 분들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아가 있게 해주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아가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정(歷程)은 꿈과 의지를 심는 희망으로의 여정(旅程)이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흐름을 하나의 명제로 수렴해야 했던 시대의 격동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세아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도전과 성취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 시련과 역경을 헤치며 고민도 많았던, 개혁과 도전, 그리고 성찰(省察)로 여울져간 50년 세월이었습니다.

세아는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쉬지도 않았습니다. 호황기에 불황을 대비했고, 불황기에는 구름 넘어 푸른 하늘이 있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의 신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아가 5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지속 가능한 경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한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뿌듯하고 행복하게 느껴진 것은 이룩한 성취보다 ‘참고 이겨낸 그때’를 회상할 때였습니다. ‘잘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극적으로는 참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다. 입학과 졸업, 이별, 결혼 등 이런 날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됩니다. 역사의 한 장이 끝난 전환점의 날, 이날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이런 날에는 글 한 구절, 문장 한 단락이 마음에 위안과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터키 시인 나짐 하크메트의 시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에서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 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 지지 않았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아는 생애 최고의 날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한 번 더 다짐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 지향의 문화, 협력회사와 상생을 추구하는 상호협력의 문화,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正道경영(正道經營)의 문화를 더 굳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셋별처럼 나타났다가 유성처럼 사라져간 우리 산업사에, 우리가 작은 이정표를 세웠다는 나름의 자부심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해 나가는 세아와 세아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돌이켜 보면 세아가 걸어 온 길은 곧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60년 부산철관공업이 철강산업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이래 세아는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철강전문기업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국내시장에 공급하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국내 최초로 강관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우리나라 철강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등 수출 증대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새로운 설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데 힘써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많은 기업이 부침을 거듭했던 우리의 지난 현실에서 ‘성장과 내실’의 균형을 추구하는 세아의 경영원칙은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세아의 이 같은 성과는 “기업 하나 하나가 우량기업으로 성장하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는故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사업보국 신념을, 이운형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인 열의와 노력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철강산업은 모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소재입니다.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세아는 우리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세아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세아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훌륭한 성과를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50년 또한 철강업체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랑스러운 역정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세아의 뜻 깊은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이운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신뢰와 도움을 나누는 파트너, 세아제강의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세아제강 임직원 여러분께 한국 철강업계 및 포스코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초 철강 불모지였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철강입국을 향해 첫 삽을 뜬 이래, 반세기에 걸친 긴 세월 동안 국가 기간산업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세아제강의 발자취는 한국 철강사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큰 족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아제강은 창립 이래 부단히 철강 외길을 걸으면서 파이프 업계의 만형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으며, 뛰어난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 강관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여정 속에서 세아제강과 포스코는 근 40년에 가까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 왔습니다.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기업 간 무한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변화의 속도와 충격의 심각성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큼니다.

강관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아제강의 기업이념처럼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부단히 창출하는 노력만이 또 다른 50년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50년, 100년의 성공 신화를 계속해서 창조해 가는 세아제강의 미래를 확신하며, 포스코와의 든든하고 건강한 파트너 관계가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전통과 미상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세아가 있기에



박영주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장

세아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업을 창업하여 50년이란 세월을 한결같은 자세로 한 길을 달려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기업들이 태어났지만 유성처럼 사라져간 우리 산업 역사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아의 기업활동을 보면 ‘정중동(靜中動)’이란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지향할 바를 끊임없이 쫓고, 경영의 내실을 다지며, 겸손한 모습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묵묵히 기여하는 것을 전통으로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경제와 문화예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아의 메세나 활동입니다. 딱딱한 하드웨어에 빔낼 수 있는 철강업을 우리 사회의 소프트웨어 부문인 문화예술계에 접목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가꾸려는 문화시민기업으로서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철강업체로는 드물게 세아의 이운형 회장은 초대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한국메세나협회의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펴 ‘오페라를 사랑하는 철강기업 세아’란 이름을 알린 것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온 고매한 기업전통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인류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기업으로 더 많은 발전과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세아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면서 사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아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본주의 경영의 본보기, 세아의 50년 역사

1960년 '부산철관공업 주식회사'로 출발한 세아는 창립 이래 강관업계의 선두주자로,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강관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는 강관 분야에서 세계적 품질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의 선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음은 물론, 최초로 미국에 강관을 수출하는 등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화에도 앞장 서 왔습니다.

1975년 부산파이프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세아특수강, 세아 ESAB, 한국번디, 세아메탈 등의 설립, 인수를 통해 강관뿐만 아니라 CHQ선재, 마봉강, 와이어, 용접봉, 스틸튜브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습니다. 1996년에는 세아제강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냉연 판재류 사업에 진출했으며, 2003년 세아베스틸(구 기아특수강)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세아는 종합철강회사의 면모를 구축했으며, 특수강 생산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세아는 철강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태국, 뉴질랜드 등에 생산, 판매회사 등을 운영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적 글로벌 철강기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세아의 성공은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겠다는 기업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업주와 현 이운형 회장의 인본주의 경영이념은 신뢰와 성실, 그리고 화합이라는 세아의 독특한 기업문화 전통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열의와 창의, 그리고 노력이 존재하는 한 세아는 또 다른 50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아시아 일류 기업'에서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세아제강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운형 회장 이하 그룹 임직원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배정운
한국철강신문 회장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청렴하고 불굴은 기업정신

1960년 세아의 모태가 되는 세아제강을 창업했던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은 세아의 기업문화의 기반을 닦았다. 그는 몸소 실천하는 근검절약과 신뢰 경영으로 한국산업사에 희망의 다리를 놓았다.

만금을 쓰면서도 한 푼을 아낀다

해암은 평생 근검했으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였다. 한 벌 양복으로 한 철을 보내는가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 밤 열차를 타고 공장과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세아의 모든 공장은 달력 뒷면에서 설계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종이 한 장도 아꼈다. 레미콘 작업을 할 땐 차량 적재함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자갈까지 쓸어 내렸다. 비싸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묻히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언제나 “있을 때 아껴라. 돈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다”며 절약을 강조했다.

반면 신기술, 신설비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자에는 만금을 아끼지 않았다. 얻은 수익은 전액 자본으로 재투자하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혼신을 다했다.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해암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산철관공업을 강관업계의 선두 기업으로 만들고, 국내 최대의 강관공장인 포항공장을 건설했다.

성실하게 정도의 길을 간다

활달한 성격과 건강을 타고났던 해암은 흘린 땀방울만큼 소출을 안겨주는 땅의 정직함을 통해 삶의 신념을 확고히 했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이치를 터득하고, 훗날 기업인으로서 사업보국의 일생을 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장 쓸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은 이해하지만, 투기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땅이 필요한 사람의 몫을 빼앗는 것이다”며 부동산 투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해암은 물자가 부족하고 환율 변동이 심해 철강재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널뛰던 시절에도 이를 이용해 쉽게 부를 축적하려 하지 않았다. 적정 이윤 이상으로 값을 올려 남의 돈을 탐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정직하고 성실한 상거래로 돈보다 더 중요한 신용을 쌓았다.

자립 경영으로 기업은 영속되어야 한다

해암에게는 격동기의 한국사회를 거치며 터득한 ‘세금을 잘 내야 한다’는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부정축재, 비리 등으로 몰려 중도에 낙오되었지만, 해암은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어 사업 확장을 도모할 때도 금융기관에 손 벌리는 것을 꺼렸다. 남의 돈을 쓰면 간섭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력으로 사업을 이끌기 힘들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정확한 납세는 물론 경영이 투명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창업 9년 만인 1969년 기업 공개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주식을 공개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세아그룹이 태동한 부산에서는 최초의 상장이었다.

‘기업은 튼튼한 체질을 갖추어 영속되어야 하며, 감사와 겸허의 정신으로 고용 안정과 산업 발전을 이루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을 믿고 실천했던 해암은 세아를 가장 내실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신뢰와 정도 경영을 실천한다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해암은 정도(正道) 경영을 중시했다. 화려하거나 무리한 경영을 멀리하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내실을 다지고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과도한 차입을 멀

리하면서 “특혜를 받거나 외부 도움에 의존하다가 가는 거꾸로 그 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늘 강조하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조그만 낭비도 줄여야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도를 걷는 경영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기에, 그것은 지금 세아의 경쟁력이 되었다.

또한 해암은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맡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신뢰 경영의 교훈을 남겼다.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요시했다. 일본가와 사기제철(현 JFE)이 대표적인 예로 창업 직후 원재료 수입처로 처음 인연을 맺었던 유대관계를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故 해암 이종덕
만화로 나온다

한국 강관산업의 선구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故 해암(海巖) 이종덕(李鍾德) 세아그룹 명예회장의 일대기가 만화로 제작되어 대한상의 경제교육 홈페이지(hi.korcham.net)에 소개된다. ‘한국 강관산업의 선구자, 해암 이종덕’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세아그룹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만화가 유영수 화백이 제작을 맡았다.

이종덕 회장은 1960년 45세 나이에 국가산업의 주춧돌 기업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부산철관공업을 창립하면서 국내 강관산업 발전을 이끌며 국가 기간산업의 육성에 일생을 바쳤다. 만화는 이종덕 회장의 유년, 사회 입문시절, 사업기반을 일구었던 일, 포항공장을 완공한 일, 국내 최초 사원지주제 도입, 이익의 사회환원 등을 상세히 담았다.

10월 15일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창업주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흉상제막식이 열렸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업주의 열정과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 열린 흉상제막식에는 해암과 더불어 초창기 회사 발전에 힘썼던 주역들의 발걸음이 함께 했다.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 흉상제막식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창업주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흉상제막식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세아제강의 발전에 기여한 초창기 임직원 분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흉상 제막을 위한 테이프 커팅을 한 후 이병준 SeAH Steel America 회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지금의 세아그룹이 있기까지 이종덕 명예회장의 신념과 경영철학이 밑거름이 되어 반세기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에 제막식에 자리한 내외빈들은 생전 이종덕 명예회장의 청렴하고 검소했던 성품과 대범했던 경영철학을 돌이키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운형 회장과 이휘령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감사말씀에 이어 기념식수행사가 있었다. 이번 흉상기념식은 창업주의 땀이 곳곳에 베인 포항공장에 흉상이 세워져 그 의미가 더 깊다.

이종덕 명예회장님을 기억하며



회장님께서서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겸손을 가장 중요한 사회인의 덕목으로 고집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 회장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이곳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혼탁한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시는 완강한 회장님의 고집 때문에 힘들 때도 많으셨겠지만, 회장님의 고집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회장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철학은 오늘날 세아그룹의 현장 중심 경영, 정도 경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아그룹이 있기까지 일단 목표를 세우신 후 힘차게 추진하셨던 회장님의 용기, 그리고 술선수범하느라 깨끗한 옷이나 좋은 음식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던 겸손한 성품, 그 외에도 사람을 학벌이나 지위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한결같이 능글하고 유연하게 대하셨던 태도는 당시 별 것 아닌 학벌이나 재능을 믿고 경솔했던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종덕 회장님의 동상이 산업현장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현장을 중요시하셨던 생각과 일치하여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아가 50년이라는 중간지점을 돌아 백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유목민들(nomad people)의 지혜를 소속흔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nomad people)의 지혜를 소속 유개포(小速柔開包) 전략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아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기초소재 시장을 상대할 때 이종덕 회장님의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셨던 소(실용성, low profile),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해 오신 速(신속성, speedy), 선입관 없이 사람과 사물을 유연하게 대해오신 柔(유연성, flexibility), 늘 개방적 자세를 유지하셨던 開(개방성, openness), 그리고 따뜻한 인정으로 포용력을 갖추셨던 包(포용력, tolerance)등의 회장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동상을 대하는 후진들에게 그때마다 많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SeAH Steel America

이 병 준 회장





세상을 아름답게





1960~
2010

나무의 숨겨진 나이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나무의 나이는 나이테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이겨내며 한 자리에 우뚝 선 고목(古木) 앞에 서면
감탄과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50년이란 세월 동안 한결같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커다란 그늘이 된 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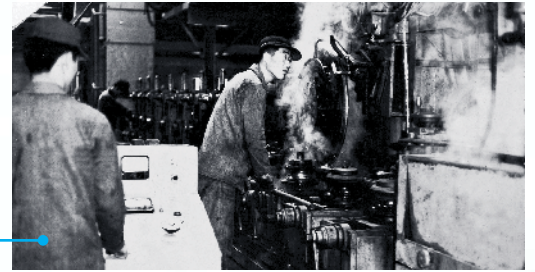
세월이 더해 갈수록
신록과 목향이 그윽해져만 갑니다.



개혁과 도전의 역사 세바 50년

사업보국의 꿈을 안고 출발

1960년 10월 19일 부산 감만동에서 태동한 부산철관공업은 아세틸렌가스 용접방식의 중고 조관기 1대로 처음 강관 생산을 시작했다. 산업의 불모지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초석기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로 출발했던 부산철관공업은 오늘날 철강전문그룹 세아로 성장했다.



1960년대



한국 강관산업의 요람이 된 부산공장

1961년 공장 가동 후 1964년부터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개선에 노력한 결과 1965년 국내 최초로 전선관 제품에 대한 KS 표시허가를 획득하여 제품의 신뢰를 높였다. 나아가 1967년에는 미국 알라스카스틸에 국내 최초로 강관제품을 수출했다.



국민기업으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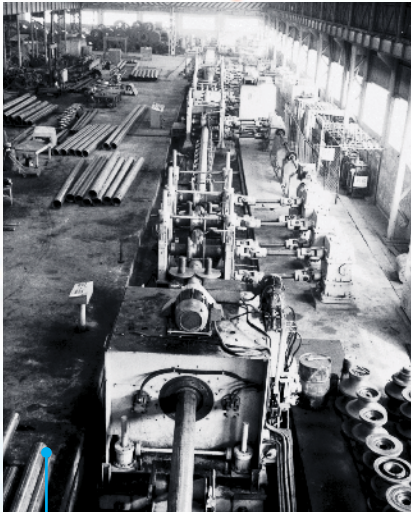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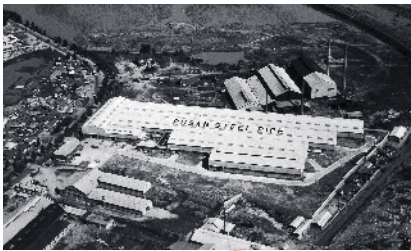
기업 공개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1969년 5월 13일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공개 기업의 선두그룹에 올랐다. 부산지역에서는 최초의 상장이었으며, 전체 상장사로서는 41번째로 기록됐다.



2010년 10월 19일 세아그룹의 모태가 되는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50년의 시간은 1960년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국가적 전환기에 탄생하여 시대적 굴곡 속에서 땀과 열정으로 성장을 일궈 낸 역정(歷程)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사진으로 정리해 본다.

서울공장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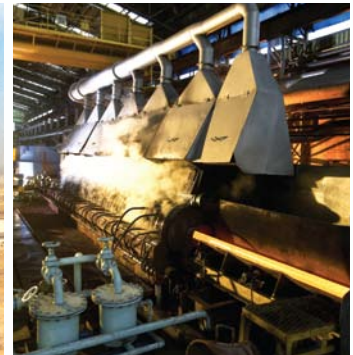
1968년, 부산공장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 대응의 한계에 달하자 양질의 다품종 강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봉동 서울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1970년 가동을 시작해 1973년에는 소·중·대구경 강관을 생산하는 종합생산체제를 갖추었다.



1970년대

포항공장 건설

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개발 붐이 일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여기에 사용되는 고품질 강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자 포항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1978년 10월 19일 준공된 1공장에는 고품질 강관을 생산하는 최신 설비인 SRM(Stretch Reducing Mill, 소형열간압연)이 설치됐다.



1980년대



부산파이프 시대 개막

서울과 부산에 강관공장을 소유하고 세계 각국의 규격 제품을 생산해 국내외 시장을 넓혀 온 부산철관공업은 국가 기간산업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1975년, 상표로 널리 알려진 '부산파이프(PSP)'로 상호를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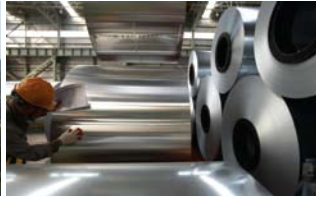


금탑산업훈장 수훈

포항공장 건설을 계기로 부산파이프는 용접강관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API 강관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내 최초로 미국 석유협회 API 표시승인(API 5A, 5L, 5LX)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해외 수출의 길이 크게 열리면서 1981년 1억 불 수출의 탑과 함께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판재사업 진출

세아제강은 강관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영역의 확대 차원에서 1998년 군산에 판재공장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판재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대



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출범

경영자원의 집중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2001년 세아제강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제조와 투자 전문 회사로 분할하여 순수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를 출범시켰다. 세아홀딩스는 11개의 출자 자회사의 사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신뢰를 높였다.

창업주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 별세

1915년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여 “전후 피폐해진 국가 경제를 세우려면 기간산업이 바로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1960년 부산철관공업을 설립, 40년간 한국 강관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철강 외길을 걸어난 창업주 해암 이종덕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1990년대



세아로 새로운 출발

부산파이프는 전략사업단위를 집중 육성하고 21세기형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5년 그룹경영체제를 선언했다. 이어 전 계열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1996년, 창립 35주년이 되는 해에 사명을 '세아'로 변경했다.



기아특수강 인수

주력 사업인 철강·제조 부문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 법정관리 기업이었던 기아특수강을 인수했다.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소재인 특수강을 생산하는 기아특수강이 세아베스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그룹사에 편입되면서 세아는 재계 40대 기업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놓았다.

아랍에미리트 현지법인

SeAH Steel UAE 설립

세아제강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 현지법인 SeAH Steel UAE를 설립했다. 현재 세아제강은 아랍에미리트의 라스알카이마에 2011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플랜트용 강관 및 석유, 천연가스 Line Pipe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한편, 2010년 2월에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엔지니어링과 지속적 공급물량 확보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뢰 경영으로 최고의 고객가치 추구

세아는 철강·제조, IT, 서비스 등 3개 분야로 사업군을 형성하여 그룹 성장을 꾀해 왔다. 2008년 철강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세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인 5조 4,290억 원의 매출을 달성, 부채비율도 78%로 낮추어 재무 건전성을 확고히 해 2009년 제10회 한국 재무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강관2공장 준공

세아제강은 소구경 강관의 원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2009년 5월 군산에 강관2공장을 준공했다. 포항공장과 안산공장의 조관라인을 강관2공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세아제강은 소구경 강관의 새로운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



글로벌 성장전략 확대

1967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해외 수출기반을 다져 온 세아제강은 1978년 미국 현지법인인 Pusan Steel America를 설립한 이래로 1993년 베트남 하이퐁, 1995년 일본, 베트남 호치민, 2003년 중국 등에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계열사들 또한 중국 6개 도시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 생산거점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메세나대상 창의상 수상

1997년부터 경제와 문화예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발전시키는 기업 메세나 활동을 시작한 세아제강은 한국메세나협의회로부터 2003년 메세나대상 창의상을 수상했다.



United Spiral Pipe 준공식

강관 제조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세아제강은 2007년 포스코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 Steel과 더불어 United Spiral Pipe를 설립했다. 2010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 API 고강도 강관공장을 준공한 USP를 통해 세아제강은 API 강관의 세계 최대 시장인 미주 시장에서 전략 제품의 판매기반을 구축했다.



세아제강의 50주년 발걸음



친애하는 세아제강 가족 여러분! 그리고 회사 안팎에서 땀 흘리며 세아제강과 함께 어려움과 꿈을 같이 나누는 협력사, 고객, 주주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일찍이 철강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산업의 핏줄이라 일컫는 강관사업을 시작하여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건실한 성장을 일군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자랑스러워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오늘 이 같은 감격스러운 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50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면, 1960년 부산에서 창립한 이후 국내 최초로 미국에 강관 수출, 최초로 용접강관의 최고봉인 API 규격 획득, 70년대 말 국내 최대의 포항공장 시대 개막, 80년대 국내 최초 이중단열관 생산, 국내 최초로 강관 생산 2천만t 돌파 등 세아의 역사에는 최초, 최대라는 각종 타이틀이 많았습니다. 이는 남보다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여 한 발 앞서 투자하고, 끊임없는 선진 기술의 도입과 신제품 개발로 우수한 품질을 위해 노력한 세아제강의 역량과 전통의 결실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떠한 목표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자취를 가슴에 되새기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려 합니다. 오늘의 세아제강은 고객과 협력사, 주주 및 종업원들이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한 50년’의 역사에 자만하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도약과 발전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사업 부문별로 유지해온 명성을 더욱 발전시켜 한 차원 높은 경쟁력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5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놓은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 또 다른 반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향후 5년간의 성장, 경쟁, 글로벌 전략으로 구분된 중장기 전략의 단계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첫째, 노련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겸비한 인재들과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포항공장을 명품 공장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메카인 포항지역은 철강연구소와 대학 등 기술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향후 반세기 고급 강관 제품의 최적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군산의 강관2공장은 일반재 생산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스테인리스 강관, 티타늄 튜브 등을 생산하는 창원공장은 경남지역의 중공업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건을 살려 신소재 등을 적용한 특수관 전문 생산공장으로서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합니다.

넷째, 아연도금 및 컬러강판을 생산하는 군산의 판재공장은 독자적인 수익 모델의 정립으로 전천후 생존기반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광폭을 생산할 수 있는 #2CCL 설비의 추가 가동을 기반으로 알루미늄 및 가전용 컬러강판시장 고객에게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생산판매 거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점

차 지역화 되고 각 국의 산업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겪어왔습니다. 7~8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에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을 개척했고, 90년대 베트남의 생산판매 법인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국, API의 주력 시장인 미국에도 대구경 강관 생산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 후속 대구경 공장이 내년 2월에 준공됩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제2단계로 시작된 “CHAMP 21” 혁신활동은 세아제강 100년 역사를 위한 밑거름이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전 사원이 하나로 조화되어 창조적, 적극적으로 목표를 실천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21세기 강관업계의 챔피언을 유지하며 지속 성장하자’는 슬로건 아래, 세아제강의 모든 직원들은 사업장별 특성과 전략 과제가 연계된 성과 중심의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전략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이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필요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와 다양해진 시장의 요구는 우리에게 경영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가의 전통이 깊이 스며든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할 50년”의 1단계 목표인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2015년까지의 매출액 5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아제강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 같이 영광스런 순간이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아제강 사장 **이 휘 령**

50살 세아에게 보내는 편지

지천명(知天命), 공자는 50세를 일컬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했다. 어느덧 5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앞으로의 험한 걸음을 준비하는 세아에게, 세아의 어제를 지키고 오늘을 있게 한 50살 통갑내기 사우들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띄운다.

강관업계의 중심 세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글 ● 세아제강 포항 생산2팀 S/P공장 김영대



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것도 내 나이와 맞먹는 거대한 공룡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기분인데.

다행이 내가 1983년에 입사를 했으니 조금은 자격이 주어진 것 아닌가 싶다.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나이도 같고 하니 친구라 생각하고 편하게 써야겠네.

지금은 나도 지천명(知天命)이라는 나이가 되어 회사에 다닌 생활을 뒤돌아보니, 내가 너를 만났을 때는 내가 제일 혈기 왕성할 때였던 것 같다. 네가 살찌면 나도 살이 찌고 네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서 밤잠을 설쳤었지. 눈물을 흘리고, 또 한때는 서로 좋아서 열싸 안기도 했지.

너와 함께 한 시간이 있기에 이제는 눈을 감고도 징검다리를 건너듯 너를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만들려고 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난 더 열심히 슬기와 지혜를 모아 너를 보필할 생각이야. 50살이면 건강도 조심해야 할 때구나. 상한 음식을 먹고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선별하고 더 열심히 보필할게. 우리가 더 오래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지.

처음 이런 편지를 쓰고자 펜을 들었을 때는 무얼 써야 할지 걱정이 앞섰는데, 이런 기회를 얻은 나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소 두서가 없지만 편지를 쓰다 보니 지나온 일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편의 영상이 되어 생각이 나는구나!

정말 행복해 지금도 가슴이 뛰고 너무 아쉬워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도 하게 된다.

친구야! 내 50년 삶 동안 너와 함께 한 시간이 더 길터라. 누구보다 가깝고 친한 오랜 친구야! 앞으로도 영원히 강관업계의 중심에서 우뚝 선 너의 모습을 보며 웃고 싶다.

힘든 일, 기쁜 일 함께 한 오래된 벗

글 ● 세아제강 창원 품질경영팀 정비반 김진각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오늘의 세아제강은 나와 동료들의 깊은 애정과 두터운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이기에 더욱 감격스럽고 뿌듯하다.

인생에는 3가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세아제강에 입사한 것이라 말할 것이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나에게도 힘든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지만, 내 뒤에 세아제강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또 즐거울 수 있었다.

세아제강의 역사는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곳곳이 외길을 걸어 한국 철강 발전의 한 주축이 되고 한국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시간의 기록이다. 힘든 시기를 함께 걸어 온 세아제강과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빠로서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행복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백년 이후까지 물려주고 싶다.

오늘의 세아제강이 있기까지는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50년, 더 나아가 우리 세아제강이 영속하길 기원하며, 먼 훗날 자랑스러운 세아제강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다시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다.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의 이름과 같이 진정한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길 마음속 깊이 외쳐 본다.

끝으로 세아제강의 창립 50주년을 자축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마음다문 시간, 세아의 타임캡슐

지나온 50년을 돌아보면서 세아제강 각 분야의 네 사람이 각자의 보물을 꺼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100년이 지나면 열어보고 싶은 타임캡슐에 자신만의 보물과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되듯이 지금의 우리도 언젠가 미래의 사람들에게 추억과 또 용기, 그리고 든든한 대들보기 될 것이다.



포항공장 생산기술팀 신재협

처가에 인사 가서 받은 첫 질문이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는 것이었는데, ‘세아제강’이라는 답변에 굳어 있던 장인 어르신들의 표정이 미소로 바뀌었죠.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한 세아제강에서 근무한다니 뿌듯하네요. 앞으로의 100년 기업이 될 세아인으로서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세아제강은 저에게 새 삶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린, 그 모든 것이 세아제강 덕분입니다.

세계 강관시장을 뒤흔드는 허리케인 세아제강! 세아제강이 50주년에 이른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배가시켜 향후 50년 안에 전 세계 파이프 시장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협 사우의 설계도

고심 끝에 설계한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파이프 샘플(첫 출하 시 채취). 세아제강 핵심인재로 발돋움 할 저의 최초의 결과물입니다. 타임캡슐에 넣어두고 항상 초심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포항공장 생산기술팀 류현철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가끔 100주년 행사 때 저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합니다. 82세의 노년에 다시 젊은 날의 일터였던 포항공장을 본다면 감동과 뿌듯함이 교차하겠지요?

세아제강에 들어와서 힘들었던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만 가족과 같은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가 있었기에 이겨냈습니다. 타지에서 포항으로 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제게 회사 선배가 지금의 아내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늘 함께 해 주는 아내, 세아제강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겠죠.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건실한 기업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아제강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류현철 사우의 사진

현재 50주년에 세아제강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진을 넣고 싶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요? 나중에 100주년이 되어 지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과, 열심히 일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을 돌이켜 보고, 또한 앞으로 100년, 200년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공장 생산1팀 소경2공장 이대원

한 회사가 한 가지 직종으로 반세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간 한 길만 걸어온 역사 속에 있는 세아와 제가 자랑스롭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아제강에서 일하면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은 PM38 OCTG 생산 라인을 시운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보다 더 많은 시련과 기쁨이 공존하겠지요. 작게는 저 자신, 크게는 전 사원이 과거의 선배님들이 성취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100주년 때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대원 사주의 CD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실제 모습을 CD로 제작하여 담아 두고 싶습니다. 과거 50년 전과 현재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미래 50년 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항공장 생산1팀 소경1공장 임창원

입사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혁신학교를 갔습니다. 야간산행을 했던 날 그곳 밤하늘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것은 처음이어서 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듯한 기억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입사한 지 이제야 6년이 된 저로서는 잘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입사하셔서 지금의 세아제강을 만들어온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며 그 노력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큼니다. 지금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먼저 입사하신 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다음 100주년을 위해 그리고 그 미래에 있을 다음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원 사주의 벽화

포항공장에 제가 그린 벽화를 담고 싶어요. 화단 가꾸기를 할 때 처음 그린 벽화로 상을 받고 난 후 공장벽까지 꾸미게 됐죠. 포항 1공장, 2공장, LD공장, 전주공장까지 4곳이 있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은 세아를 용으로 표현한 LD공장 벽화예요. 추운 겨울 덜덜 떨면서 열심히 완성했던 그 그림을 100주년 때 다시 볼 수 있다면 감동적 일 것 같네요.



“세아의 아름다운 약속”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축하연

우리나라 강관산업의 발전을 이끈 세아제강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축하연을 개최했다. 반세기 동안의 성취를 기념하는 축하연은 음악회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구택 포스코 상임고문,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한광철 동부제철 부회장, 김영철 동국제강 사장 등 참석한 300여 명의 철강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지나온 50년에 대한 감사한 마음, 앞으로 나아갈 50년에 대한 새로운 다짐

지난 반세기 한국의 경제발전사 속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지만 세아제강은 욕심 없이 한 우물을 파왔다. 개혁과 도전의 지난 50년의 역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오늘의 세아를 만든 기틀이 되었다. 1부 공식행사는 이러한 세아의 지난 50년의 감회를 전하는 시간이었다. 행사의 서두를 세아의 창업주였던 해암의 창업여행으로 장식하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보국의 신념을 토대로 일군 세아의 지난 성장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 부산에서 세아제강이 태동한 시절부터 세계로 도약하는 지금의 세아그룹에 이르는 지나온 50년의 시간은 감사와 겸허로 쌓아온 성취였음을 알리는 다양한 영상들이 상영됐다.

공식행사에서는 세아제강 이휘령 대표이사의 사업경과 보고와 이운형 회장의 기념사도 이어졌다. 세아제강 이휘령 대표이사는 사업경과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설명했다. 포항, 창원, 군산 등 국내 생산거점의 특화에서 나아가 북미·동남아·중동 및 북아프리카를 잇는 글로벌 공급체제를 완성해 100년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다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5년 후에는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축사는 참석한 300여 명의 업계 관계자를 대표하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손경식 회장은 “많은 기업이 부침을 거듭했던 우리의 지난 현실에서 성장과 내실의 균형을 추구하는 세아의 경영원칙은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세아가 반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훌륭한 성과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50년 또한 철강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이 한 번은 찾아온다”

“50주년을 맞는 오늘은 앞으로의 50년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가 공존하는 날”



역정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녹화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을 포함한 세아제강의 신입사원들의 축하 메시지도 상영됐다.

상생과 정도의 경영으로 “최고의 순간”을 준비

이운형 회장은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단단하고 젊은 세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아에게 있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며 “미래를 향한 세아의 수레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이 한 번은 찾아온다”며 “50주년을 맞는 오늘은 앞으로의 50년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가 공존하는 날”이라고 벽찬 감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때론 고민도 많았고 회사가 보수적이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한 걸음씩 큰 희망의 하늘이 있다는 신념을 놓지 않고 걸어온 것이 지속 가능 경영의 토대가 됐다”고 “세아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열정과 역경을 헤쳐 나온 협력사들의 도움, 수많은 주주와 고객의 사랑, 금융계의 협력 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이운형 회장은 “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으로 최고의 날을 지향하며 상생과 정도의 경영을 더욱 굳게 다져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새로운 도전과 응전을 위한 힘찬 의지를 내보였다.

세아의 아름다운 약속을 담아 낸 오케스트라의 향연

행사의 2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세아의 아름다운 약속’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곡의 클래식 명곡으로 담아냈다.

음악회의 오프닝은 세계 음악계의 신예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의 비에니아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올림 바단조 작품 14-1악장’으로 시작하였으며, 라라 ‘그라나다’와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 ‘신성한 사원에서’,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바리톤 우주호와 테너 박성도의 힘찬 음성으로 선사하였다. 또한 마지막은 차이코프스키 ‘교향시 5번 바단조 작품 64-4악장’을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상현 지휘자의 지휘로 연주했다. 앵콜곡으로는 요한 스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이 연주되어 축하연에 참석한 모든 초청객들과 하나 되는 감동을 선사했다. 세아는 이 연주곡들을 통해 향수와 정열, 열정과 사랑, 기쁨과 감동, 당당한 피날레를 모두 표현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세아가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메시지로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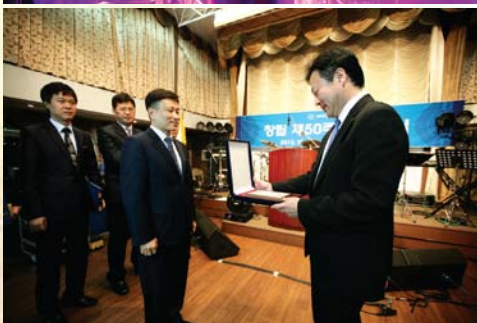
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으로
최고의 날을 지향하며
상생과 정도의 경영을
더욱 굳게 다져나갈 것





세아제강 가족, 새로운 희망을 품던 날

세아제강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뢰와 열정으로 이어 온 지난 50년의 시간을 자축하는 행사들이 사업장 곳곳에서 열렸다. 본사, 포항, 창원, 군산에서 각각 펼쳐진 축하의 자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직원가족, 거래처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 배를 타다

세아제강 본사에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한 배를 타고 뜻 깊은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10월 15일 여의도 한강유람선에 오른 본사 임직원들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아제강 50년을 향한 희망 찬 출발을 알렸다.

장기근속자, 모범사원, 우수 거래처 및 거래처 우수사원 등의 시상과 함께 이어진 기념사를 통해 이취령 대표이사는 “50년을 이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해 포항, 창원, 군산 공장을 돌며 문화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더 스틸’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가을 강바람을 맞으며 서울의 야경에 흠뻑 빠진 본사 임직원들은 ‘더 스틸’의 신나는 음악과 함께 50주년을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각오를 함께 다졌다.



화합의 장을 열다

10월 17일 포항공장에서서는 '새로운 50년을 여는 한마음 대잔치'라는 주제로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항공장 전 직원 및 직원가족, 퇴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세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구현한 슬라이드 쇼와 역사사진 전시, 대북공연, 레이저쇼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부 행사에서는 각종 시상과 함께 노사대표의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또한 세아제강의 발자취와 사원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됐다. 2부에서는 혁신과 소통의 페스티벌이라는 테마로 사원 장기자랑, 초청공연, 가족게임 등이 펼쳐졌다. 50주년을 맞은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날을 모든 직원가족들이 화합의 장으로 기념했던 포항공장은 도약을 위한 결의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함께 뛰다

창원공장과 군산 판재공장, 강관2공장 등 3개 사업장에서는 10월 16~17일 창원 어울림운동장, 전북인력개발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각각 온가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로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 모두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뛰고, 응원하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로 50주년의 기쁨을 나누었다. 팀을 나누어 체육행사에 참여한 직원가족들은 서로 경쟁하고 이끌어 주면서 세아제강의 오늘을 일구어 낸 모두의 땀과 노력에 서로를 격려했다.





고맙다, 세아제강!
자랑스럽다,
세아제강!

10월 19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아제강에서 자랑스런 50년의 역사 한 페이지를 담당했던 올드보이(이하 OB)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7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서울, 포항, 부산 지역에서 총 36명의 OB들이 참여하여 포항공장과 창원공장을 견학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감회 어린 소감을 전하였다.



글 ●●OB 김임섭 前 전산실장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시절

일행들이 경주 불국사에 내리자 관광 안내원이 어디서 온 방문객들인지 물었다. “세아제강이면 포항에 있는 철강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세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사람들뿐이니 궁금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찰나 누군가가 재빨리 대답했다. “세아제강 신입사원 연수팀입니다.” 일행의 박장대소가 쏟아졌고 나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페이소스(Pathos)가 스며 있었다.

그랬다. 나는 지금이라도 신입사원이고 싶다. 그래서 활기차고 싱싱한 그들 틈에 끼워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시절을 다시 해보고 싶다. 지난 세월 속에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기억들을 말짱하게 다시 고치고 싶다. 그러나 시절은 이미 지났고 아무리 꿈을 꾸어도 학창시절에 배웠던 영문법처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전화가 왔었다. 세아제강 창립 50주년, OB초청행사에 초청한다는 전화였다. 지나온 내 인생에서 가장 팔팔했던 시절을 몸담았던 세아제강이 아닌가. 부르지 않아도 가고 싶었는데 초청이라니 얼



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수화기를 놓고 잠시 그 시절을 떠올렸다. 그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다.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호칭 추가 KS표시허가를 신청해 놓고 서울공장 품질관리실 전 직원이 45일간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준비했던 일, 45일째 되던 날 KS심사를 끝내고 서울공장 주재이사께 부서원들 회식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회식보다 목욕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일, 전산실을 맡아보라는 회사의 부름에 5년간을 월요일 출근, 토요일 퇴근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원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새롭다. 뒤에 듣기로 그 때 세웠던 코드체계와 업무를 해석한 로직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니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OB, 추억에 잠기다

세아제강의 OB 모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서울 본사와 서울공장 출신들의 모임인 '부철동우회', 포항공장 출신들의 모임인 '포돌이', 부산의 '부산OB' 모임이 있다. 9월 7일 1박2일의 여정으로 서울팀 24명은 아침 8시 30분에 서울 본사 앞에서 버스로 출발을 하고, 부산팀 12명은 12시 30분에 출발하여 오후 3시쯤에 모두가 포항공장에 도착했다.

포항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준공식 때의 흥분되고 떠들썩했던 분위기가 생각났다. 해암 회장님이 손수 심으셨던 훌쩍 커버린 히말라야시타가 반갑다. 2층 회의실에서 간단한 회사의 현황을 듣는다. ERW로 API X80 외경 609.6mm 두께 22mm관도 생산하고 스텔밴더로 외경 2,032mm, 두께는 25.4mm까지, 스파이럴은 외경 3,048mm에 두께 25mm까지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에는 4억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고, 금년에는 매출액 2조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거라 한다. 괄목한 발전이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니 다이올방청유 냄새가 반갑다. 땀 하던 파이프 절단기 소리는 없어졌지만 귀에 꽃은 무선 수신기 사이로 들려

포항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준공식 때의 흥분되고
떠들썩했던 분위기가 생각났다
해암 회장님이 손수 심으셨던
훌쩍 커버린 히말라야시타가 반갑다

오는 쿵쿵 하고 파이프 떨어지는 소리는 여전하다. 자동화가 되어 서인지 공장 안의 작업자 수는 간결해 보였다. 방문객 통로를 따라 이제는 나처럼 약간 나이 가 든 SRM 설비를 지나서 JCO공장도 둘러보았다. 우리 일행 모두는 저 아래 작업장의 주역이었지만 세월은 갔고 시간은 흘러 이제는 관람객이 되었다.

이튿날은 11시 30분쯤에 창원공장을 들렀다. 사무동을 새로 지어 깨끗했다. 조경만 조금 다듬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공장이었다. 창원공장은 스테인리스 강관과 티타늄 튜브의 전문 공장이라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열 교환기에 들어갈 파이프도 국산화하였다고 한다. 구내식당에서 공원일 상임고문과 점심을 함께 했고 기념품도 하나씩 받아 들고 타고 왔던 버스에 올랐다.

고속도로에 어둠이 깔렸다. 아까 마신 소주에 취기가 어른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겠지만, 고향이 수몰되어 찾아갈 고향이 없어진 사람들의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나, 한때 몸 담았던 회사가 없어져버려 추억조차 더듬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설사 그 회사가 아직 있다 한들 한때 몸 담았었다는 연고로 공장을 둘러볼 기회를 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 고맙다 세아제강! 자랑스럽다 세아제강! 내 마음의 고향 세아제강!

세아 라고 쓰고
신력 라 읽는다

전 세계 곳곳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세아인들의 땀과 노력이 영어로 가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들.
꾸준하고 한결같은 우리의 이름.
‘세아’입니다.





세아베스틸 종합 준공식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도약 선언

세아베스틸은 9월 15일 군산시 소룡동 군장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특수강 증산 투자의 성공적 완료와 대형단조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내 대표적인 특수강 제조업체로 성장한 세아베스틸의 종합 준공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 지식경제부와 전라북도 간부, 철강업계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도약 선언

세아베스틸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강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거듭났다. 6천300억 원을 들여 제강공장을 증설하고 기존 라인의 합리화 작업을 마친 세아베스틸은 연간 특수강 200만t, 대형단조 30만t 등 총 230만t의 제강 생산설비를 갖추게 됐고, 기존 라인의 합리화 작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수강 증산 투자의 성공적 완료와 새롭게 시작하는 대형단조사업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종합 준공식에서 세아베스틸은 세계적 철강회사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세아베스틸의 종합 준공식은 앞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원자력 등 발전 설비와 담수화 설비, 대형 플랜트 설비에 소요되는 단조공장의 준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0만t 고품질 특수강 생산체제 구축

세아베스틸은 2005년 이후 수요산업의 성장보다 한 발 앞선 투자로 공급능력을 제강은 80만t에서 200만t으로, 특수강 제품은 74만t에서 180만t으로 확대해 자동차, 기계, 조선 산업에 소요되는 고급 특수강 소재를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효율적인 증설 및 합리화 투자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번 특수강 공급능력 확대에는 약 6천3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제강공장의 증설과 기존 라인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또한 생산규모의 확대 못지않게 품질 개선에도 많은 투





자를 진행해 품질 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 무엇보다 국내 전기로 업체로는 최초로 RH정련설비를 도입하였으며, 대단면 불륨 연주기, 빌렛정정공장 신설 및 후처리 설비 보완 등을 통해 고청정 고품질 특수강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상적인 생산 레이아웃을 실현한 대형단조공장

대형단조사업은 150t 전기로와 1만3000t 프레스의 설치를 통해 연간 10만t 이상의 대형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새로 설치된 1만3000t 프레스는 최신 유압방식의 프레스로서 수압 프레스에 비해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단조작업 공간은 높이 8m, 폭 7m에 달해 국내 최대 크기의 단조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프레스 투자에 맞춰 대형단조용 150t 신규 전기로도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연간 35만 t의 잉곳(Ingot) 공급이 가능해졌다. 600t 급 대형 잉곳(Ingot)의 진공주조와 국내 최초로 도입된 LTL 주조 등 새로운 잉곳(Ingot) 생산 기술이 적용되어 원자력 발전, 화공 플랜트, 대규모 산업기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단조품 수주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형단조 신규 투자에는 약 45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제강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에 이르는 일관라인이 구축되어 품질 및 원가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수강 공급능력 확대에는
 약 6,300억 원이 투입되었고,
 제강공장의 증설과
 기존 라인의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게 됐다



이운형 회장 종합준공식 기념사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특수강에서 시작된다는 사명감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 준공식은 세아베스틸이 세계적인 특수강 전문 기업이 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는 에너지 산업에 핵심 단조품을 공급하는 대형단조사업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 드리는 자리입니다.

세아베스틸은 한 발 앞선 투자로 지난 3년여에 걸쳐 특수강 제품의 생산능력을 180만t으로 확대했습니다. 제강공장의 증설과 기존 라인의 합

리화를 위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단행하여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전기로 업체로는 최초로 RH정련설비 등 고정형 특수강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계,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특수강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설비, 화학플랜트, 대규모 산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대형단조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신 유압식 13,000t 프레스와 600t 대형 잉곳(Ingot)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만큼, 단기간 내에 원자력 발전 시장에 진입하여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과 발전설비의 수출 강국이 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그동안 특수강과 대형단조 사업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여 글로벌 경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2015년에는 제강 300만t, 매출 4조 원을 시현하는 글로벌 특수강 전문 기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성장 발전을 지향하면서, 전라북도과 군산의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는 성실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eAH 세아제강

KISNON 2010

제1회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 참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는 한국철강협회
와 한국비철금속협회 주최로 대규모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이 열렸다.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열린 이번 국제 전시
회에는 국내외 143개 업체가 참여하여
650여 개 부스를 가득 메워 '친환경,
녹색 철강과 녹색 비철'을 주제
로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
의 눈을 끌었다.



Korea International Steel &

친환경을 주제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규모 전시회는 그동안 친환경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 회사들이 생산 중인 제품, 신기술, 신제품을 총 망라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친환경, 녹색 철강과 녹색 비철인 점을 고려하여 참가한 업체들은 전시회 부스와 내용을 청정함과 깔끔함에 맞췄다. 6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전시관을 꾸민 세아는 소재 산업전이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그룹의 모태가 된 세아제강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태동에서부터 지나온 성장의 발자취를 알리며 각 계열사들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만큼,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기후변화세미나, 철 스크랩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동 관련 세미나, 중국철강산업강연회 등 10여 개의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학술적인 면에서도 질을 높였다. 3일 동안 전시관을 찾은 바이어들은 해외 20여 개국 이상에서 1,000명 이상, 국내 2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어 글로벌 전시회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 세아의 소재 우수성 홍보

세아는 2010년 10월 창립 50주년을 맞은 세아제강을 중심으로 하여 철강·제조 계열사 총 6개사가 공동으로 전시에 참여하여 철강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알렸다.

세아제강은 자체 제작한 강관을 이용해 자연을 상징하는 나무를 형상화하고, 철 곤충들로 부스를 디자인했다. 또 대규모 강관을 이용해 부스를 감싸는 인테리어로 강관업체라는 정체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탁자와 벽면 모두를 철강 소재로 자체 제작한 상품으로 만들어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세아제강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열 용사 용융코팅 방식의 코팅강관을 새롭게 선보였다. (주)한국스틸코트와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코팅강관은 기존의 에폭시 방식의 코팅이 아닌 자체 개발한 CPC(Ceramic Plastic Ceramics) 방식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세아베스틸은 직경 30-800mm 특수강 봉강제품을 햇불모양으로 조형화한 작품을 선보인 것이 두드러졌으며, 최근 가동한 1만3,00t 대형 프레스기 축소 모형을 전시해 이목을 끌었다. 세아특수강은 CD Bar와 CHQ Wire를 이용한 나무 모양의 형상으로 부스를 꾸몄으며 국내 최초로 도입한 수소벨로 공정을 보여주는 모형도 선보였다. 한국번디는 생산하고 있는 일중권 및 이중권 강관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했으며, 세아 ESAB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용접봉과 2010년 초 출시한 범용 CO₂ 용접기를 선보였다. 세아메탈은 CHQ Wire를 소재로 한 각종 금망, 플렉시블 호스 제품 등을 선보였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공산당, 천안문 사태, 값싸고 저급한 제품 등이 대부분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제품 때문에 속 썩은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중국은 이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해 슈퍼 파워를 보여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글 ●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팀 김영우 과장



챌린지 리더 3기 해외 워크숍 중국의 무서운 질주와 세아의 도전

9월 5일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너무 덥고 습했다. 기업광고 간판 속에 한국 업체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한국 차의 달리는 모습만으로도 애국심이 생기는 듯 했다. 차가 공항을 빠져 나와 남경로를 향해가는 동안 높은 빌딩과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시 동안의 우월감은 왠지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 왔다. 개인적으로는 2004년 이후 두 번째 중국 방문인데, 웃통 벗고 자전거를 타는 아저씨의 모습이나 인민복 입은 굳은 표정의 청년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서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내 풍경이었다.

상하이 엑스포로 날개를 펴는 중국

첫째 날에는 상하이 엑스포 관람이 있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행사장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 더니 정말 엄청나네'하는 생각과 함께 잠시 고구려의 병정이 되는 상상을 해보았다. 대규모 당나라 병사들이 구름 때처럼 물러와 공격해 올 때 안시성을 지키던 소수의 고구려 병사들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 하고 말이다.

이번 엑스포는 192개국과 50여 개 국제 단체가 참가한 역대 최다 수준이며, 규모 면에서나 완성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





있다. 엑스포의 테마는 'Better City, Better Life'로 더 나은 도시를 통해 인류의 삶을 진보시킨다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후문에는 참가한 그 어떤 나라에게도 행사장의 중심에 자리한 중국관보다 더 큰 규모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해를 알리고자 주력한 중국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관은 한글로 벽체를 꾸미고 다양한 체험 Performance를 준비하는 등 한국인의 독창성을 살려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를 이루었다. 한국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많아, 한류라 불리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대단함을 느꼈다.

중국에서 만난 자랑스런 세아의 위상

둘째 날은 세아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는 날이었다. 상하이에서 두 시간쯤 떨어진 난통의 POS-SeAH Steel Wire는 CHQ와 CD Bar를 생산하고 있으며, SeAH Automotive에 Rack Bar용 CD Bar를 직접 공급하여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점이 특징이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Rack Bar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주재원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난통에서 한 시간 반쯤 달려 쑤저우에 위치한 Suzhou SeAH Precision Metal을 방문했다. 세아 최초의 중국 현지법인으로 중국 내 가전업계에서 위상이 높고 다양한 고객 확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이 매년 10%이상 상승하고, 세제 혜택 축소, 환경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TS16949인증 취득과 수요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비중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다음 날에는 폭스바겐 중국공장을 방문하였다. 폭스바겐은 해외 기업이 중국에 최초로 설립한 완성차 제조공장으로 연 75만 대의 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공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풀(Full)가동되고 있는 생산현장에서 본 제품은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외관이나 내장 등이 고급스러웠다. 무엇보다 2030년 중국으로 기술 및 공장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경쟁, 두려움 없이 개척하라

중국인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종이, 화약, 나침반, 비단을 발명한 저력 있는 국가이다. 청나라 이후 식민 통치와 사회주의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중국이 이제는 엄청난 인구와 경제 규모를 무기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자금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세계 1등 국가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안시성을 지키는 병사가 두려움에만 몸을 떨고 있었다면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상하이 엑스포에서 보았던 대한민국의 독창성과 차별성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맞선다면 위기를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아도 중국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두려움 없이 당당히 개척해 나가는 아름다운 도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SeAH Steel UAE가 중동 사막에서 세아의 새로운 미래를 쓰기 시작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다. 불과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강관공장 건설 진행이 자리를 잡고 현지에서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자랑스럽게 세아의 아랍에미리트 현지법인을 세아가 족 여러분께 소개하려 한다.

글 ● SeAH Steel UAE 김석일 법인장

척박한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나다



현재 SeAH Steel UAE의 강관공장이 한창 세워지고 있는 국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자(Sharjah), 아즈만(Ajman), 움알카이와인(Umm Al Qaiwain),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 후자이라(Fujairah) 등 총 7개 토후국이 연합한 연방국가다. 라스 알 카이마를 제외한 6개 토후국은 1971년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한 뒤 아랍에미리트 연방국가를 출범시켰고, 이듬해 라스 알 카이마까지 합류하면서 지금의 7개 토후국으로 이뤄진 국가체제로 완성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40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대통령은 아부다비 통치자가, 부통령은 두바이 통치자가 각각 나눠 맡는 방식으로 권력을 나눠왔다. 연방정부의 재정은 원래 7개 각 정부가 공동으로 재정 수입의 전반을 연방예산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큰집 격인 아부다비가 70%, 두바이가 20% 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가난한 지방정부는 기여도가 미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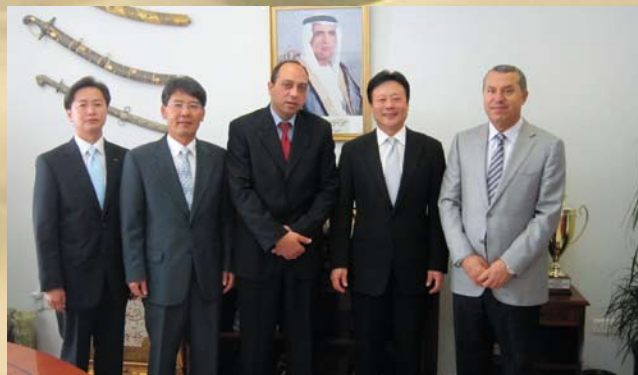
SeAH Steel UAE의 강관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는 아랍에미리트 내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아랍에미리트 전체 면적의 약 2.2%인 5,600km², 인구는 약 25만 명의 작은 토후국이다.



코우르 라스 알 카이마(Khour Ras Al Khaimah)라고 불리는 수로(Creek)를 따라 2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서쪽 지역은 구 라스 알 카이마로 박물관과 일부 정부 부처 건물, 동쪽은 알 나켈(Al Nakheel)로 통치자의 관저와 정부 부처, 기업, 산업시설이 있다. 재정은 상당히 열악하여 아부다비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을 약속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번성한 두바이를 보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못내 아쉬워하는 토후국 중 하나이다.

SeAH Steel UAE의 공장은 라스 알 카이마 수도에서 약 60Km 떨어진 국가산업단지, Al Ghayl Industrial Park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단 조성이나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계속되면서 변방 토후국 공단에도 입주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곳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투자 조건이 다른 토후국보다 상당히 유리했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늘 불리한 지분구조와 세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독자 경영을 원하는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RAKIA(라스알카이마 투자청)에서는 세아제강이 아랍에미리트의 현지법인으로서 안전한 경영권과 유리한 세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보다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수전 가능 지역을 찾고 있었던 세아로서는 금상첨화의 지역이었다. RAKIA(라스알카이마 투자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로 세아제강은 2010년 2월 7일 라이선스(산업)를 취득했고, 이로써 현지법인의 1차 목표였던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ADNOC 계열의 TAKREER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Ruwais 공단에 건설되는 정유공장을 확장하는 공사이다. 일일 40만 배럴 규모의 정유시설 건설 프로젝트로 Utility와 Offsite 시설공사로, 2013년 4월 완공이 목표인 이 프로젝트에 SeAH Steel UAE 강관



공장에서 생산하는 강관을 공급한다.

1차 목표 달성에 이른 후 4월 삼성엔지니어링과 건설계약을 맺으면서 험난한 사막에서의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경험이 없어 모든 설계와 인허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첫 건설사업에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 촉박한 건설공기를 감안하여 모두들 낮선 사막에서 고분고투하고 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돌출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인생이란, 분명한 목표가 보이는 산보다 어디로 가야 할 지 막막한 사막을 더 닳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곳 아랍에미리트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산보다 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나도 가고, 당신도 가고, 우리도 갈 때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다 해도 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은 좌우명이 있다. “We can't have the happiness of tomorrow without the pain of today.” 분명, 어려움과 힘든 여정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밝은 모습일 것이다. SeAH Steel UAE의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사막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단조공장을 향해 달린다

세아베스틸 단조팀

2010년 9월 세아베스틸은 종합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대형단조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비록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시점이지만 국내 최고의 특수강 전문 업체로서 세아베스틸만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장차 장기적인 지속 성장의 한 축을 견인해 나갈 현장의 중심에 단조팀이 있다.



세아베스틸의 새로운 도약의 중심, 단조팀

세아베스틸이 생산하는 대형단조제품들은 주로 원자력 발전, 화공 플랜트, 선박 엔진 등의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단조품들이다. 각종 대형단조품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세아베스틸 단조팀은 단조공장에서 가연, 단조, 후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과정을 관리한다. 지난 7월 대형단조품의 첫 출하를 시작한 이래 단조팀은 국내 최대 크기의 화공 플랜트용 $\Phi 6500$ Shell 단조품, 국내 최대 크기의 선박용 16m Propeller Shaft 150t 단조품을 생산함으로써 대형단조사업에서의 기록들을 하나씩 세워 나가며 조기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단조품은 원소재가 되는 잉곳(Ingot)을 주조공장과 연계하여 생산·조달하기 때문에 가열시간이나 연료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생산과정으로 인한 경제성과 생산성이 높다. 무엇보다 150~600t에 이르는 초대형 잉곳을 국내 최대 규모의 1만 3,000t 대형 프레스 설비로 작업하여 열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 엔지니어는 물론, 단조팀을 비롯한 인력들이 계층별로 구성되어 생산과정 곳곳에 관여하여 산업용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대형단조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창의적인 사고 중심

기존 선두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흔하게 만들지 않는 대형단조품을 생산하는 단조팀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창의적 사고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도전정신, 세계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단조팀의 구성원들은 하루하루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이미 전문 업체들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단조시장에서 세아베스틸이 대형단조사업으로 지속적인 미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국내외 유수의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조팀은 우선 각종 인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체형 원자력 발전용 단조품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지속적인 선진기술 습득 교육은 물론, 제품 연구개발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세아베스틸의 단조제품 하나하나에 정성과 혼을 쏟아 부으며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단조팀 구성원들의 굳은 각오이다. 또한 사람과 경험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사람을 소중히 하며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 단조팀의 장점이다. 단조팀은 이러한 장점과 열정을 바탕으로 세아베스틸의 단조공장이 세계 일류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화공 플랜트, 제철, 조선, 일반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제품의 생산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세아베스틸 단조팀 이영국 팀장

INTERVIEW

“세아특수강의 바퀴가 되어 끊임없이 전진할 것”

군산공장 단조팀은 2009년 단조사업부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신설된 팀입니다. 그만큼 가장 능력 있는 팀원들로 구성되었죠. 비록 단조에 대한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 의지와 열정만큼은 따를 자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팀워크를 다집니다.

특별히 제가 챙기는 이벤트는 팀 내 유부남들의 결혼기념일에 아내들을 초대해 팀원들과 식사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선물

도 전해주고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지, 어떤 점이 힘든 지, 또 팀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록 띄워주기도 하고요.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비조업 생산을 안정시켜 내년부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단조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한창 분투 중에 있는 팀원들이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스테디와 협력을 통해 엔지니어로서 가장 자신감 있는 팀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와 열정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세아베스틸 단조팀

이영국 팀장
단조공장 총괄 설립 초기
레이아웃 설정에서부터 세
계 최고의 단조공장이 되기
위한 목표 실현을 위해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곽종현 대리
단조팀의 기둥. 실제로 세아베
스틸에서 최장신의 키를 가진
주인공으로 단조에 대한 크나
큰 열정으로 단조공정을 담당하
고 있다.

박형춘 과장
단조팀의 안방마님. 기본
과 원칙을 바탕으로 단조
공장의 모든 공정과 협력
업체 관리를 도맡고 있다.

윤형욱 사원
단조팀의 무게 중심.
실제로 0.1t의 체중을 기
록하고 있으며 무게만큼
이나 절고 왕성한 혈기로
가열공정을 맡고 있다.



세아산업 서커스

최성식 기장

단조공장의 현장을 이끔
어가는 카리스마의 주인
공. 항상 배우는 자
세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양정순 대리

열처리 공정 담당. 현재 챌린지
리더 3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
으며, 오목이 같이 쓰러져도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끈
기의 소유자이다.



오정수 사원

단조팀의 간판 미남.
10월 2일 갓 결혼한 새
신랑으로 단조사업부
최고의 미남으로 통한
다. 단조팀에서는 각종
인증 및 열처리 공정을
담당한다.



홍용택 기술고문

자유단조 경력 35년의 베테랑.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자기관
리가 철저하며,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팀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하게 가르치고 품어준 세아에게

글●●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이수현



안녕하세요. 2006년 선발되어 2년간 재단의 장학생을 지냈던 경희대학교 이수현입니다.

저는 올해 8월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사회인이 되어 한다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학업을 하는 와중에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월 삼일회계법인에 입사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분이 많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세아였습니다.



처음 서울역에 있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 면접을 보러 가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는 2명이 최종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2명 중 1명만 붙고 다른 1명은 떨어진다는 사실과 난생 처음 면접을 보러 간다는 긴장으로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면접관 중 한 분이셨던 한진기 사무국장님께서 환하게 웃어 주시며 맞이해 주신 덕에 큰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저에게 장학금 기부가 아닌 투자를 해주십시오!”라는 당돌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릇없이 보일 수 있는 그 말에도 면접관 여러분들이 귀엽다는 듯이 웃어 주셨습니다. 세아는 제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세아의 장학생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세아 덕분에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덕분에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아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해보라는 담당 교수님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아 면접 중에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말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제가 내적, 외적으로 충분



한 성장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되는 것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 생각하여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의 수험기간을 거쳐 2009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하루 종일 공부만 했던 수험기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세아의 이사님, 담당 직원 분들, 장학생 동기들 등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공부에 지쳐 있던 시기에 세아라는 실 수 있는 나무그늘이 있었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었을까요? 회계사 시험 합격 발표 후에 제일 먼저 뛰어 갔던 곳도 세아였습니다. 그런 제게 정말 딸의 일인 양 세아가족들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세아는 저에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련회라는 연례행사를 통해 전국 대학교의 장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2006년 강원도 대관령, 2007년 일본 대마도, 2009년 강원도 영월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참가했던 대관령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전국 각지의 장학생들을 만났고, 다른 학생들과 팀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관령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고, 처음으로 한가로이 목장에서 풀을 뜯는 양을 보며 여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수련회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이었고 지금도 그

기억은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아가 저에게 전해 준 또 다른 선물은 겨울에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단 봉사활동을 통해 방문했던 곳은 서대문에 위치한 ‘송죽원’이라는 어린이집입니다. 저는 사실 평소 봉사활동에 큰 관심을 쏟은 적이 없고 일도 서툴러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송죽원의 어린 천사들을 만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것을 주어야 봉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일 지라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돌려 받는다는 따뜻한 진리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을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인생의 또 하나의 행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대학생살에 있어 세아는 또 다른 부모였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하지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세아 만큼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장학생들을 배려하는 기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 입사 지원 시에 자기소개서에도 ‘인생의 가장 큰 성취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늘 세아의 장학생이 된 것이라고 적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세아의 장학생이 된 것일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세아의 장학생답게, 세아의 이념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NEWS

Group News

세아 50년사 발간



1960년 10월 19일 부산철광공업으로 출발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과 세계화에 앞선 세아의 50년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세아 50년사>가 발간됐다. 총 512페이지 양장제본으로 제작된 <세아 50년사>는 창업주의 삶을 축약한 특별기사와 통사, 그리고 기획기사로 구성됐다. 통사는 세 개의 부로 나누어 세아의 탄생과 성장과정,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시대 변천 중심으로 기술했다. 특히 3부는 계열사의 현황을 화보와 함께 꾸며 세아의 현재 모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통사의 각 부에 삽입된 기획기사는 세아 50년의 역사현장을 오롯이 담을 수 있도록 통사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로 채웠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세아 50년사>는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세아만의 기업문화를 부각시키는데 충실했다.

팀장교육시행



팀장교육이 9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2개 차수로 나누어 각각 2박3일 동안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실시됐다. '관리자 경쟁력 향상'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10개 계열사로부터 60여 명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확실한 경영환경 시대에서 핵심 리더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중간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역할 강화에 역점을 두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

에서는 사전 과제로 2010년 최고 경영자의 신년사를 참가자 전원이 수기로 작성해보며 느낀 점을 제출해 봄으로써 경영 중점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도 가졌다.

2010 세아그룹 대졸 신입 공채 실시

세아그룹이 2010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에샵, 세아메탈 등 6개 계열사에서 부문별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되는 2010년 공채는 10월 29일~11월 7일 인터넷을 통한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11월 20일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면접과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해 통보된다. 이에 앞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에는 전국 주요 대학을 방문하며 채용설명회를 실시했다.

세아제강

포항 도금공장과 중경2공장 무재해 4배 달성

포항공장에서는 10월 20~21일 무재해 4배 목표를 달성한 도금공장과 중경2공장에 대한 무재해 달성 시상식이 개최됐다. 도금공장은 2007년 9월에서 2010년 9월까지 총 937일 동안 무재해를 기록했고, 중경2공장은 2008년 3월에서 10월까지 840일의 사고 없는 현장을 실천했다. 포항공장에 1995년 5월 처음으로 무재해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각각 4, 5번째의 시상이다. 도금공장과 중경2공장은 계속해서 무재해를 실천하여 차후 5배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공장에서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한 곳은 스파이럴 공장이 유일하다.

세아제강 부인회 장학금 기탁

세아제강 포항공장 부인회에서 일일 호프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포항시 장학회에 기탁했다. 10월 19일 포항시 장학회를 찾은 세아제강 포항공장 부인회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처음 시도한 일일 호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뜻 깊은 곳에 사용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Vol.329
2010 09 | 10



미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시아 스틸 포럼 포항공장 방문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스틸 포럼 2010 참석자 100여 명이 8월 25일 포항공장을 찾았다. 한·중·일 협력과 동아시아 철강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성숙기에 접어든 일본 철강산업과 고도 성장기에 있는 중국 철강산업, 그리고 양국의 한 가운데 있는 한국 철강산업의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일정 가운데 잠시 포항공장을 들른 참가자들은 강관 생산 현장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현재를 간접 체험했다.

세아베스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획득



세아베스틸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주지도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보건활동으로 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인증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해외 안전보건경영 인

또한 부인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사회공헌과 봉사의 의

증인 OHSAS 18001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새단장

세아베스틸이 인터넷 홈페이지(WWW.seahbesteel.co.kr)를 새롭게 단장하여 9월 15일 특수강 '제강 300만'체제 구축과 대형단조 공장 종합 준공식에 맞춰 오픈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메인 화면은 플래시 효과를 이용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반영했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는 한 번에 전체 목록을 볼 수 있다. 영문 홈페이지는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10 세아베스틸 한마음 축제 개최



세아베스틸은 10월 9일 군산 공설운동장에서 임직원 및 가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0 세아베스틸 한마

음 축제"를 개최했다. 총 4개 팀(불꽃, 도전, 혁신, 비전)으로 구성된 이번 체육대회는 오전, 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전 직원과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됐다. 세아베스틸은 한마음 축제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NEWS

2010년 2분기 기업설명회(IR) 개최



세아베스틸은 10월 6일 증권사 및 기관 투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조 사무동 세미나실에서 기업설명회

(IR)를 개최했다.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수강 사업의 발전성과 단조사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세아베스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사들은 “특수강 공장 생산규모 증설모습과 대형단조공장 1만3,000t 프레스의 웅장함과 함께 고급 단조시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3/4분기 우수사원 포상 실시



10월 11일 3분기 세아베스틸 우수사원 포상이 각 본부별로 실시됐다. 이번 우수사원 포상은 총 45명으로 각

팀에서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추천 받아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한편 12월에는 4/4분기 우수사원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세아특수강

충주시와 투자협약 체결

세아특수강은 9월 8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진행 협약을 체결



했다. 세아특수강은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14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공장의 증설과 함께 충주

제3산업단지 4만3450㎡ 부지에 충주 제2공장을 신설하고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기계부품 등의 소재로 쓰이는 냉간압조용선재 및 마봉강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장 설립으로 약 4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충주지역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한국번디

제2회 SPM Global Conference 개최



한국번디가 9월 27일에서 10월 2일 SPM Glob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한국번디가 해외법인과의 교류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품질과 가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국,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현지 법인에서 약 21명의 법인장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번디는 중장기 비전 달성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분과회의를 통해 신제품 및 신기술을 소개하고, 계열사 및 관련 회사를 방문했다.

Vol.329
2010 09 | 10



평택공장, 지역주민 한마당 축제 후원



한국번디 평택 공장에서는 9월 11일 이충레포츠 공원 내 분수광장에서 열린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및 평택 지역

내 다문화복지 유관기관과 함께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2010년 지역주민 한마당'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한마당, 나눔 한마당, 공연 한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준비해 다문화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공장 여우회, 독거노인 방문



광주공장 여우회에서는 9월 20일 광산구 노인복지센터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후원금을 전

달했다. 현재 광주공장 여우회는 독거노인 4가구와 결식아동 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아에샵

윤리경영교육 외래특강 실시

세아에샵은 8월 10일과 17일 양일 동안 본사 대강당에서 '2010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교보생명 다윈(DA-Win) 서비스 센터' 이상욱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씩 2회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을 통해 세아에샵 임직원



들은 윤리경영철학이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2010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2010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세아

에샵 마이더스 분임조가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7월 초 지역예선을 거쳐 전국 총 255개 업체가 출전한 이번 경진대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8명의 마이더스 분임조원들은 'O/S공정 전단장치 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라는 주제로 값진 결과를 거머쥐었다.

독서골든벨 행사 후원



세아에샵은 9월 18일 용남중학교가 주최하는 독서골든벨 행사에 도서상품권을 후원했다. 평생 독서습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한 용남중학교의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을 추진하게 된 세아에샵은 이번 기회를 통해 창원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이름을 알렸다.

세아이엔티

해외영업 다각화를 위한 Shop Survey 실시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부가 7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보일러 영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Shop Survey를 실시했다. 일본의 HRSG System 전문 제조회사인 Babcock-Hitachi의 Libya/Toripoli Project의 Steam Drum 제작과 관련하여 진행한 이번 Shop Survey는 해외영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아울러 JGC Corporation, Japan의 Qatar Barzan Onshore Project 수주를 위하여 울산공장의 Shop Survey를 9월 8일~9일 양일간 실시했다.

이번 두 차례의 Shop Survey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도시가스

소외계층 방문 이웃사랑 실천



강남도시가스는 9월 16일 공급권역 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24세대를 방문하여 쌀과 라

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세대들은 강남도시가스가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던 곳에 외에 고객센터의 검침원과 안전 점검원들의 추천을 받아 추가로 선정됐다. 강남도시가스는 도시가스라는 공공성이 강한 생활연료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저소득 세대에게 노후가스시설 무상교체행사 등 이웃사랑의 정신을 펼치고 있다.

'강남도시가스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 개최



강남도시가스는 8월 28일 구로구 개봉동에 소재한 '아름다운 가게' 개봉점에서 '강남도시가스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열었다. 연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사내 봉사단이 연

중 봉사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가게 개봉점과 연계하여 회사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됐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기증했으며, 기증품은 900여 점에 달해 행사의 큰 의미를 더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나눔과 순환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미 사용했던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국내외의 소외 계층 및 각종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세아홀딩스

●입사**김수진 전략팀

세아베스틸

●결혼**김영호 공정연구그룹 | 오정수 단조팀 | 김현철 주조팀 | 김성호 공정연구그룹 | 장혜민 소형압연팀 ●조의**서정구 단조설비팀(부친) | 이만영 수입검사팀(부친) | 도주용 제강팀(부친) | 손태현 품질보증팀(부친) | 전종길 가공설비팀(부친) | 황익준 주조팀(부친) | 김기현 제강팀(모친) | 김진서 제강팀(모친) | 하기봉 연주팀(모친) | 온재홍 수입검사팀(장인) | 박영복 연주팀(장인) | 지태웅 주조팀(장인) | 이경민 소형정정팀(장인) | 박유진 제강설비팀(장모) | 김광빈 주조팀(장모)

한국번디

●입사**김성식 평택 생산팀 ●결혼**뇌극검 평택 경영기획팀 | 유옥희 평택 노동조합 ●출산**윤옥근 광주 생산팀 | 이정일 평택 연구3팀 | 손상영 평택 생산팀 ●조의**박경덕 평택 인력개발팀(조부)

세아에셋

●결혼**황성욱 생산팀 | 이성훈 설비관리팀 ●출산**옥수정 품질경영팀 | 이원생 산팀 | 김영숙 품질경영팀 ●조의**김영희 생산팀(모친) | 이창호 생산팀(장인) | 허영화 생산팀(시아버지)

세아이앤티

●입사**이동남 플랜트사업부 영업2팀 | 박인준 플랜트사업부 PM팀 ●결혼**정재혁 플랜트사업부 생산팀 ●출산**임채훈 플랜트사업부 생산팀 | 박영원 플랜트사업부 ENG2팀 ●조의**김진주 플랜트사업부 PM팀(조부) | 임채훈 플랜트사업부 생산팀(조모)

강남도시가스

●조의**공영욱 영업관리팀(부친)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최인석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권정아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박지은 세아홀딩스 전략팀
김평임 군산시 소룡동
손 민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황성훈 세아제강 재경팀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최연정 세아제강 수출2팀
정신자 부산시 수영구 감포로
이경우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 이태원 세아특
수강 공장혁신팀(본사) | 박수연 한국번디 전략기획팀
| 손은숙 세아예삼 총무팀 | 김중훈 세아메탈 재경팀 |
이상기 세아이엔티 업무지원팀 |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 권기범 세아로지스 경영관리팀 |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기획팀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
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
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
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슈퍼맨이 된 사나이, 강남도시가스의 이우익 과장이 변신한 슈퍼맨의 모습이 인상
적입니다. 고객봉사실에서 근무하니 유연하고도 다채로운 면모와 상황마다 변신하
는 슈퍼맨의 모습이 잘 어울렸습니다.

손 민 서울시구로구구로5동

세아예삼의 한길한가족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직과 퇴사가 빈번한 지금의
직장문화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던 좋은 모델
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재범 서울시관악구행운동

‘추억을 만드는 낭만의 바다열차’를 통해서 본 남상욱 수석가족의 낭만여행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한 스페셜 테마였던 ‘행복’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현재에 감사하자 마음을 먹으니 벌써부
터 행복지는 것 같습니다.

최연정 세아제강수출2팀

